

패션비즈니스 제26권 2호

ISSN 1229-3350(Print)
ISSN 2288-1867(Online)

J. fash. bus. Vol. 26,
No. 2:95-109, May. 2022
[https://doi.org/
10.12940/jfb.2022.26.2.95](https://doi.org/10.12940/jfb.2022.26.2.95)

Corresponding author

Hyun Ri Woo
Tel : +82-33-640-1654
Fax : +82-33-640-1691
E-mail : woo405@gwnu.ac.k

강릉 문화자원을 활용한 니트 패션문화상품 개발 -강릉 수보 문양을 중심으로-

한선미* · 우현리†

*강릉원주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Development of Knitted Fashion Culture Products Using Gangneung Cultural Resource -Focusing on Gangneung Subo Patterns-

Sun Mi Han* · Hyun Ri Woo†

*Dept. of Fashion Design,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Korea

Keywords

cultural resources,
Gangneung Subo,
textile design, knit,
fashion culture products
문화자원, 강릉 수보,
텍스타일디자인, 니트,
패션문화상품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at developing a new textile design based on the authentic and cultural resources of the Gangneung Subo pattern and applying the textile design to knitted fashion products. Gangneung has been recognized for its outstanding artistry in the field of Gyubang art. Gangneung Subo is an embroidered wrapping cloth. The discovered and preserved Subo at this time was from the Kwandong region centered in Gangeung, and is regarded as the product of the indigenous native culture in Kwandong. Therefore, as a representative cultural resource of Gangneung, the Gangneung Subo has sufficient value as a material for the development of cultural products with uniqueness, distinctiveness, and historicity. As a research method, the background of Gangneung Subo was investigated. A total of 12 motifs were created while preserving the authentic originality of the Gangneung Subo pattern and minimizing unwanted deformations of the pattern during the developing process. The created motifs were repeatedly applied to the pattern and new textile designs were created. Eighteen knit fashion products, including narrow and wide-width mufflers and neck warmers, were developed by applying the new textile designs. As a significant cultural resource for cultural goods development, this study ascertained the value of Gangneung Subo, preserving its unique distinction and history. This study was especially significant since the Gangneung cultural goods developed used knitted material and extended the development to producing real products.

I. 서론

전 세계는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문화상품의 개발을 통해 자국의 고유한 문화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활용도를 높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 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의 고유성에 기반을 두고 세계적 보편성을 갖는 문화상품과 콘텐츠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동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역의 독특한 문화자원을 문화 상품화하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의 이미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Hwang(as cited in Kim, 2006)은 지역의 문화유산과 전통 산업자원은 지역 정체성 확립을 담보하는 자산이자 지역 문화의 산업적 원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문화상품의 개발은 지역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에도 핵심적인 구실을 할 수 있다.

강릉은 오죽헌과 선교장, 경포대 등의 유형 문화자원들과 강릉단오제, 강릉농악 등의 무형 문화재를 보유한 오래된 역사 문화도시이다(Lee, 2009).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강릉은 여름철 휴양지라는 명성 외에 '올림픽 관광지'라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얻었으며, 강릉선 KTX가 개통되면서 하루 평균 1만 2,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Choi, 2018). 이처럼 강릉은 풍부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보유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관광객들에게 강릉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홍보할 수 있는 상징적이고 실용적인 문화상품의 개발은 미진한 실정이다.

강릉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신사임당의 초충도를 활용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패션디자인 연구의 Lee and Kim(2007), 스카프 디자인을 연구한 Jung(2014)과 Lee(2003), 텍스타일디자인 개발의 Kim(2014), Jung(2015) 연구가 있었다. 또한 문화상품 연구로 신사임당의 초충도 작품(Cha, 2010; Hyun & Bae, 2009; Song, Choi, & Kim, 2015)과 난설헌 허초희 작품(Yang & Lim, 2013; Yang & Lim, 2014) 등의 연구가 있었으나, 텍스타일디자인을 개발하여 아이টে에 적용한 3D 시뮬레이션 작품만을 제안하고 실제적인 문화상품의 제작으로는 연계되지 않았다. 그 외에 강릉선교장의 조형미를 이용한 텍스타일디자인 연구가 이루어졌다(Lee, 2020).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현실적인 문화상품의 개발에 있어 제한점을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따라서 강릉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개발이 다각적 방면에서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강릉은 예로부터 규방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예술성을 인정받은 고장이다.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문양이 특징인 강릉 수보는 관동지역 고유의 문화적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독자적 양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강릉의 대표적인 문화자원으로 차별성과 역사성을 갖춘 강릉 수보는 문화상품 개발의 소재로서 독특한 미적 우수성을 지니고 있다(Song & Park, 2010).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강릉의 문화자원인 수보의 문양을 모티프로 활용하여 텍스타일디자인을 전개하고 이를 니트 패션문화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 첫째, 문헌과 선행연구,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강릉의 문화자원 보유 현황과 문화상품 개발현황을 파악하고, 강릉 수보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조형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둘째, 실증적인 연구를 위하여 2020년 5월 20일부터 2021년 1월 24일까지 동양자수박물관(2020년 5월 방문)의 현장 조사와 문헌 자료 및 인터넷 검색 등으로 77점의 시각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후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14점을 제외한 총 63점을 최종 분석자료로 선정하고 앞서 고찰한 강릉 수보의 조형적 특징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디자인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셋째, 디자인 개발을 위해 패션 관련 분야 경력 7년 이상의 전문가 3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총 10점의 수보 문양을 선정하였다. 문양 선정기준에 있어 니팅 기법은 섬세하고 복잡한 문양 표현에 있어 한계점을 가진다는 점을 높은 비중으로 반영하였다. 수보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 과정은 Illustrator CS6와 Photoshop CS6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모티프와 텍스타일디자인을 개발하고 이를 니트 패션문화상품으로 제작하였다.

니트 패션문화상품의 개발 아이টে는 강릉 지역의 기후적 특성을 반영하여 머플러와 넥워머로 제안되었으며, 문양을 표현하기 위한 니트웨어의 편직 기법은 두 가지 이상의 색실로 문양을 나타내기 적합한 자카드 편직 기법을 사용하여 총 18점의 니트 패션문화상품을 개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강릉의 문화자원과 문화상품 개발현황

1) 강릉의 문화자원

문화자원은 문화와 자원의 합성어로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는 문화자원을 문화재로 규정하고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경관

Table 1. Classification of Gangneung Cultural Resources

Type	Division	Detail
Tangible cultural resources	Historical cultural resources	Ojukheon, Seongyojang, Gyeongpodae Pavilion, Sin Saimdang, Yulgok li, HeoGyun, HeoNanSeolHeon, Gangneung Subo, Gangneung Kim's Myeongju-gun Royal Mausoleum, Gangneung Bohyeon Temple Seojo Amita Samjon Buddha Statue
	Cultural facility resources	Oriental Embroidery Museum, Ojukheon City Museum, Seongyojang Folk Museum, Charmsori Gramophone & Edison Science Museum, Gangneung Coffee Museum, Heogyun and Heonanseolheon Memorial Hall and Sibi Park
	Artificial landscape resources	Chodang Village, Jeongdongjin Hourglass Park, Gangneung Coffee Street Anmok Beach
Intangible cultural resources	Human cultural resources	Forged Brassware Artisan Woochan Kim, Gangneung Galgol Guwajul Bongseok Choi, Traditional Embroidery Artisan Soondeok Kim
	Non-human cultural resources	Gangneung Danoje festival, Gangneung Peasant music, Gangneung Arirang, Haksan Odogtgegi, Gangneung Galgol Guwajul, Gangneung Sacheonhapyeong Dapkyo play

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한다. Nam(2007)은 문화자원이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인지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하며 장소, 지역, 공간을 바탕으로 보존·발굴·활용의 측면에서 문화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유·무형의 여러 자원으로 정리하였다. 이의 연구를 참고하여 강릉의 문화자원을 Table 1로 분류하였다.

Table 1을 통해 강릉은 오죽헌, 선교장, 강릉 수보, 신사임당의 초충도, 동양 자수 박물관, 정동진 모래시계 공원, 단오제, 강릉농악, 강릉 아리랑 등 역사·문화적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유형무형의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5년 이후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통한 산업적 가치 창출의 극대화 및 마케팅을 위한 다양한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래된 역사적 전통을 보유한 서울, 경주, 부여, 전주, 안동, 함평, 제주 등은 지역의 문화자원이나 지역축제 상징물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로 지역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반면 강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강릉단오제, 오죽헌, 신사임당의 초충도 등 오랜 역사와 전통이 깃든 다양한 문화자원을 보유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한 성공적인 문화상품 개발 사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강릉의 문화자원인 강릉 수보는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독창성과 예술성이 뛰어나며 관동지역 특유의 문화적 정서가 반영되어 독자적 양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강릉 수보는 2018년 5월 한국자수박물관으로부터 5,000여 점의 유물을 기증받은 서울공예박물관에 가장 많은 양이 소장되어 전시되고 있으며(Park, 2018), 강릉에서는 동양자수 박물관에 5점의 강릉 수보가 보관 및 전시되고 있었으나, 강릉시와의 임대 기간 만료로 2021년 7월 1일 폐관되어 유물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Lee, 2021).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무형 문화재 김순덕 전통 자수장을 비롯하여 임영 보자기 연구회, 시민 단체인 강릉 자수 알리미를 중심으로 강릉 수보의 맥을 잇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강릉의 대표적인 문화자원으로 역사성과 차별성을 모두 갖춘 강릉 수보는 지역의 문화상품 개발 소재로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2) 강릉의 문화상품 개발현황

문화상품의 가치는 국가 또는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문화역사적 특성에서 유래하며, 시대적·정서적 가치에 맞도

록 산업적으로 개발·가공되는 단계를 거쳐서 경제적 고부가 가치를 파생시키는 특성이 있다. 많은 지방 자치 단체들은 지역 문화자원을 접목한 문화상품 개발로 지역 홍보 및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강릉시 또한 풍부한 관광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상품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릉 지역의 문화상품 개발현황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매년 ‘강릉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강릉 관광기념품을 발굴하여 지역의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상작들 대부분이 공예품에 치중되어 있고, 생산과 유통 및 판매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여 큰 실효성을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강릉예술창작인촌’의 공예작가들을 중심으로 초충도, 강릉 자수, 소나무, 커피 등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있으나, 수공예적 성격이 강해 상품의 대중화보다는 체형 위주의 상품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강릉시가 운영하는 관광기념품 판매점은 오죽헌 안의 ‘솔향 명품 SHOP’과 Figure 1의 ‘강릉시 공예·특산품 전시판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상품 가격으로 인한 구매 부담감과 관리 체계 부실 등으로 관광객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오죽헌 입구에 입점해 있는 Figure 2의 ‘초려 공방’은 다양한 문화상품의 구비로 보는 즐거움과 함께 가격 선택의 폭이 넓어 관광객들의 호응도는 높은 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로 강릉의 문화상품 판매점으로서의 체계성과 전문성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강릉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은 신사임당의 초충도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개발 사례로 문구류와 생활 소품 등 80여 종의 상품들이 국립박물관문화

재단에 의해 개발되어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샵(goods shop)’에서 판매되고 있다(Figure 3). 강릉 수보는 2017년 방영된 SBS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에서 공예가 조순애가 초충도와 강릉 수보 문양을 수 놓은 침구류와 발을 제작하여 드라마 속 사임당의 방을 꾸미면서 대중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으며(Figure 4), 임영 공방의 박인숙 작가는 ‘2017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강릉 수보 문양을 활용한 ‘강릉 자수 보자기 안경 다키’를 개발하여 대상 수상의 성과를 이루었다(Figure 5). 최근에는 강릉의 청년 작가들을 중심으로 Figure 6의 강릉 자수 문양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자 전시회 ‘깁’이 기획되어 한복, 자수, 도자, 스카프, 매듭, 비즈 등 강릉 자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화상품들을 개발하여 전시하였다.

이처럼 강릉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상품 제작 기법에 있어 수공예기법에 편중되어 개발되고 있어 상품의 대량 생산과 유통에 대한 정책이 미흡한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강릉 수보 문양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에서 볼 수 없었던 니팅 제작기법을 적용한 니트 패션문화상품의 개발을 통해 강릉문화상품 제작기법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대량 생산 방식을 통한 문화상품의 대중화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2. 강릉 수보

수보(繡褙)는 수가 놓인 보자기로 ‘수’는 자수(刺繡)를 뜻한다. 현재까지 발견된 수보는 거의 강릉을 중심으로 한 관동 지방에서 나온 것으로 관동 지방의 토착적인 자생 문화의



Figure 1. Gangwon Crafts and Special Product Exhibition and Sales Center (taken by author)



Figure 2. Choryeo Workshop (taken by author)



Figure 3. National Museum of Korea Goods Shop (www.naver.com)



Figure 4.
Bedding in the Drama 'Saimdang'
(www.naver.com)



Figure 5.
*Gangneung Embroidered Bojagi Glasses
Cleaner* (www.souvenir.or.kr)



Figure 6.
Exhibition 'GIV'
(www.pressian.com)



Figure 7.
Saju Danja-bo,
19 × 50cm, 19C
(Heo, 2004, p. 74)



Figure 8.
Hwajo-mun Subo 1,
32.5 × 32cm, 19C
(www.koreanart21.com)



Figure 9.
Hwa-mun Subo 1,
32.5 × 32cm, 19C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1988, no. 106)



Figure 10.
Moran-mun Subo 1,
33 × 33cm, 19C
(Heo, 2004, p. 74)

산물로 보고 있다(Heo, 2006). 수보의 제작 시기는 바탕천으로 주로 사용된 기계직 면직물의 생산 시기를 미루어 구한말 무렵으로 추정하고 있다(Heo, 1988). 수보는 물건을 싸서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등의 일상적인 용도와 혼례 등과 같이 예절과 격식을 갖추는 의례용으로 사용되었다(Figure 7).

수보의 문양은 수복(壽福), 부귀(富貴), 다남(多男) 등 길상의 의미를 담은 것이 대부분으로, 전통 민속 예술의 공통되는 정신적 기반인 복락기원(福樂祈願)과 관련이 있다(Heo, 1988). 복락기원의 시각화 형태는 기호성, 주술성, 상징성의 의미를 함축한 문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보의 문양에 가장 빈번히 사용된 자연물은 나무 문양이다. 이는 한국의 고대 신앙과 민간신앙에서 나무를 자연물 중에서도 영험 있는 것으로 보고 생명력과 여성적 생식능력을 상징하는 신앙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이다(Kim, 1993). 수보에 표현된 나무는 Figure 8, Figure 9와 같이 나무줄기가 중심에서 가

장자리로 갈수록 짧게 표현되었으며 가지에 뺨뺨이 늘어선 잎은 자손 번창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수보의 꽃은 부귀영화를 상징하며 가장 많이 나타나는 화문은 목단문으로 주로 보의 중앙에 크고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으며 도식화된 형태가 아닌 사실적 묘사에 충실하였다(Figure 10). 그 외에 장수의 뜻을 지닌 국화문(Figure 11), 매화문, 연화문 등이 있으며, 화문은 Figure 12와 같이 대부분 나비, 새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하였다. 열매는 다산, 다남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석류는 자손의 번창을 바라는 의미에서 사용된 문양으로 석류알이 가득 찬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수화문(樹花紋) 다음으로 빈번하게 사용된 문양으로는 Figure 13의 학, 봉황, 공작, 원앙 등의 서조문으로 봉황문은 학문과 더불어 계급의 표시와 장식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일상 용품의 격을 높이는데 중요한 문양이 되었다.

수보는 용도와 기능에 따라 기러기보(Figure 14), 패물보, 사주보, 버선보 등으로 나뉜다. 꾸며진 형태는 평면형, 반주



Figure 11.
Gughwa-mun Subo,
40 × 40cm, 19C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1988, no. 90)



Figure 12.
Hwajo-mun Subo 2,
38 × 40cm, 19C
(www.koreanstonemuseum.co
m)



Figure 13.
Ssanghak-mun Subo,
38 × 40cm, 19C
(Heo, 2004, p. 79)



Figure 14.
Giroegi-bo
33 × 33cm, 19C
(Heo, 2004, p. 87)



Figure 15.
Suhaw-mun Subo 1,
32.5 × 35cm, 19C
(www.orientalembroidery.org)



Figure 16.
Sumok-mun Subo 1,
41 × 43cm, 19C
(www.orientalembroidery.org)



Figure 17.
Maehwa-mun Sangja
Batchim-bo, 13 × 13cm, 19C
(Heo, 2004, p. 91)



Figure 18.
String Decoration Flower
Pattern, 32 × 35cm, 19C
(Heo, 2004, p. 74)

머니형, 자루형 등으로 구분되며, 만들어진 구조에 따라 홀보, 겹보, 누비보, 조각보 등으로 구분되나 대부분 겹보로 제작되었다. 수보의 바탕천은 대부분 면직물로 제작되었으며 안감으로는 명주를 많이 썼다. 쪽, 치자, 꼭두서니, 쪽 등 다양한 식물로 천연 염색하여 사용하였으며 실은 바탕천과 반대되는 색으로 배색하여 화려한 색채미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수보의 바탕천 겹면에 수를 놓으면 뒷면에 바느질선과 실밥 자국이 보이는데 이를 가리기 위해 바탕천 뒤에 안감으로 명주를 덧대어 겹보로 만들었다(Heo, 2006).

수보의 장식으로는 일반적으로 끈이 사용되었으며, 그 외에 손잡이, 오색 술, 바이어스, 매듭 등을 달았는데 이는 물건을 싸서 묶는 기능을 강화하고 수보의 외관을 화려하게 꾸미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끈이 달린 위치를 살펴보면 Figure 15처럼 끈이 안쪽 면의 네 귀에 붙어 있는 것이 있었고, 한 귀에만 붙어 있는 것도 있었다(Figure 16). 또한 수보의 용도에 따라 대칭으로 두 개가 달리거나 안쪽 면 가

운대와 한쪽 귀에 달리기도 하였다. Figure 17과 같이 끈이 없는 수보는 예물을 진설할 때 밑에 까는 받침이나 턱개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끈에는 대부분 수를 놓지 않았으나 Figure 18처럼 화문 등을 수놓아 장식한 것도 있었다(Heo, 2004).

조선 시대 주로 제작된 강릉 수보가 조각보를 제외하고 많이 전해져 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 복라기원의 의미로 수보를 소중히 간직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정성껏 만들어진 수보의 보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후대에 전해지는 유물이 다른 보자기들보다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Heo, 2004).

강릉 수보는 보자기에 담긴 이상적 가치와 관동 지방의 지리적·문화적 특성과 생활양식이 반영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여성들의 자아가 더욱 자유롭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관동지역의 지리적 특성으로 여성에 대한 국가와 남성들의 통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Kim, 2012).

3. 강릉 수보의 조형적 특징

강릉 수보의 조형적 특징을 활용한 모티프와 텍스타일디자인의 개발을 위하여 Lee(2005), Kim(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보의 형태, 구조, 색상으로 나누어 수집한 시각적 자료 총 63점의 조형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색상의 분석은 수집 자료 중 23점이 흑백 사진 자료로 비교·분석에 제한점이 있어 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형태

강릉 수보의 문양은 대부분 자연에서 도출된 것으로 사실적인 것이 양식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수집한 시각적 자료의 경우 양식화된 형태가 52점(82.5%)으로 문양의 표현 양식이 문양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절제된 생물 형태적 선만으로 단순화·도식화되어 평면적으로 표현되었다. Figure 19의 화목문 수보를 살펴보면 나무줄기는 직선형과 자유로운 곡선형으로 단순하게 표현하였으며, 나뭇잎은 초승달 형태로 도식화하고 꽃은 동심원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문양 구성의 경우 복합 문양 57점(90.5%)으로 문양이 단독으로 표현되기 보다는 대부분이 Figure 20처럼 나무, 꽃, 나비, 새 등 여러 문양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길상의 의미를 강화하는 다양한 문양의 구성을 이루고 있다. 이는 관동지역 특유의 문화적 정서가 반영된 수보의 시각적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

다. 문양의 면을 나누어 여러 가지 색실로 화려하게 수를 놓는 방법은 수보의 형태적 특징 중 하나로 수집한 자료 중 39점(61.9%)에서 나타났다. 이는 음양오행의 색채를 색동의 이미지로 표현한 것으로 단순한 수보 문양의 형태를 풍요롭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Figure 21). 이러한 문양의 표현방식은 수보에서만 표현된 독자적인 문양의 조형적 특징임을 보여준다. 강릉 수보의 형태 분석 결과를 Table 2로 정리하였다.

2) 구조

강릉 수보 문양의 구도는 Figure 22의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의 평면도 형식 44점(69.8%)과 Figure 23의 정면으로 바라본 모양의 입면도 형식 19점(30.2%)으로 평면도 형식의 구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Heo, 1997).

문양은 대부분 수보 중심부의 원형문이나 화문을 중심으로 하여 대각선이나 십자가형의 두 개 직선을 중심으로 사방이 대칭되게 문양을 배치하였다. 좌우 마주 보게 문양을 배치하는 좌우상견형이나 팔방대칭형도 다수 발견되며 문양이 보자기 전반에 방사상으로 퍼진 배열도 적지 않았다. 상류층에서는 전통적인 대칭형과 방사형을 따랐는데, 대칭형은 하나의 점이나 직선을 중심으로 양편에 같은 문양을 마주 보게 배치하는 방식(Figure 24)이고 또 다른 하나는 Figure 25와 같이 방사형으로 중앙의 한가운데에서 사방으로 길게

Table 2. Form of Gangneung Subo





Division		Detail		
Characteristic	Stylized form	Compound pattern	Expression of division of patterns using various color threads	
Gangneung Subo				
	Figure 19. <i>Hwamok-mun Subo</i> , 41 × 41cm, 19C (Heo, 2004, p. 74)	Figure 20. <i>Hwajo-mun Subo 3</i> , 38 × 40cm, 19C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1988, no. 96)	Figure 21. <i>Beongae-mun Subo</i> , 36 × 36.5cm, 19C (Heo, 2004, p. 73)	
Proportion	52(82.5%)	57(90.5%)	39(61.9%)	

Table 3. Structure of Gangneung Subo

Division	Detail		
	Top view	Front view	
Structure			
	<p>Figure 22. <i>Suhwa-mun Subo 2</i>, 32.5 × 32cm, 19C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4, p. 291)</p>	<p>Figure 23. <i>Moran-mun Subo 2</i>, 35 × 35cm, 19C (Heo, 2004, p. 73)</p>	
Proportion	44(69.8%)	19(30.2%)	
Layout Form	Symmetrical Form	Radiation Form	Free Form
			
	<p>Figure 24. <i>Suhwa-mun Subo 3</i>, 35 × 35cm, 19C (Heo, 1997, p. 321)</p>	<p>Figure 25. <i>Hwa-mun Subo 2</i>, 41 × 42cm, 19C (Heo, 2004, p. 95)</p>	<p>Figure 26. <i>Sumok-mun Subo 2</i>, 41 × 43cm, 19C (Heo, 2004, p. 62)</p>
	Proportion	48(76.2%)	4(6.3%)

내리뻗은 형상을 말한다. 형태와 상관없이 자유로운 형식도 많았는데, 서민층에서는 Figure 26처럼 자유형을 구사하였다. 이것은 다른 지역의 보자기에서는 볼 수 없는 독창적이면서도 독자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Heo, 1997). 수집한 자료의 경우 대칭형이 48점(76.2%), 방사형이 4점(6.3%), 자유형이 11점(17.5%)으로 대부분 좌우 또는 사방 대칭이 되도록 문양을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보는 주제가 되는 문양과 배경이 되는 요소들에 대하여 강약을 살린 조화로운 배치와 안정감을 최대한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즉 문양의 대칭을 통한 균형과 조화, 선과 면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한 균형감과 울동감의 부여 등 제작자의 예술적 감각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강릉 수보의 디자인적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다(Kim, 2012). 강릉 수보의 구조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3) 색채

수보 문양에 사용된 색상은 기본적으로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으로 전통적인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에서 말하는 오색(五色)에 해당한다. 여기에 벽색(碧色), 녹색(綠色), 홍색(紅色), 자색(紫色), 유황색(驪黃色)의 간색(間

色)과 금색(金色)을 포함한 음양의 기본색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단순·명쾌한 색채 효과를 주고 있다(Heo, 2006).

수보의 바탕천을 이루는 색으로는 Figure 27과 Figure 28 처럼 청색과 홍색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이는 양색인 청색과 홍색의 보자기에 내용물을 싸서 음귀(陰鬼)를 쫓고자 하는 벽사(壁邪)적 의미를 내포한 것이었다(Ha, 1989). 이러한 색채 사용의 상징적 의미는 주술신앙과 관계된 것으로 민속적 바탕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Heo, 2004).

문양을 표현하는 색실은 바탕색과 반대되는 명도가 높은 보색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표현하였으며, Figure 29에서 표현된 것처럼 다양한 색실로 문양의 면을 나누어 수를 놓아 색동의 조화미를 표현하였다. 즉 이미지를 실루엣만 명료하게 규정하고 그 안의 색채는 모두 다양한 색으로 채움으로써 최소한의 표현으로 최대한의 장식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음양오행설의 주술적인 색채관에 근거한 색동의 화려함은 당시 조선 여인들의 뛰어난 미적 감각과 자연으로부터 오는 영감으로 이루어진 색채감각의 결과로 볼 수 있다(Kim, 2012).

수보에 사용된 장식은 주로 끈 장식이었는데, 수보에 따라 바탕천과 끈을 동일한 색으로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보색을 사용하여 상호의 색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Figure 30). 이는 당시 색상 사용에 있어 음양오행의 상징적이고 주술적인 의미를 내포하면서 능숙한 색채 사용을 통해 색채의 조화미를 극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오색, 오간색을 기본으로 한 수보의 색채표현은 우주 만물의 질서와 조화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여겨졌고 수보 문양이 지닌 길상 의미와 복합되어 복락을 기원하는 민간신앙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Kim, 2009).

III. 강릉 수보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 개발

1. 강릉 수보 문양 선정과 모티프 개발

강릉 수보 문양을 활용한 모티프 개발을 위해 강릉 수보 문양에 가장 많이 나타난 수문, 수화문, 화문에서 니팅 기법으로의 표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문양 10점을 선정하였다. 모티프는 강릉 수보 문양이 갖는 고유성과 독창성을 잃지 않도록 기존 문양의 형태를 최대한 왜곡시키지 않도록 디자인되었다(Suh, 2013). 이는 전통적 형태 그대로를 형상화하여 기본 문양을 디자인하는 것이 문화자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증진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Yoon & Hong, 2015). 강릉 수보 문양의 일부 또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토대로 Illustrator CS6와 Photoshop CS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able 4와 같이 총 12개의 기본 모티프를 개발하였다. 니트 소재의 패션문화상품 제작을 위해 패턴 전개와 편직 게이지를 고려하여 모티프의 간격과 배치를 조절하였다.

모티프 1부터 모티프 6은 소폭 머플러 제작에 적용하기 위하여 강릉 수보의 수문과 수화문, 화문의 부분 이미지를 차용하여 개발하였다. 모티프는 수보 문양의 형태적 특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복합 문양으로 구성하여 문양에 담긴 길상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수보 문양의 양식화된 형태의 특징을 살려 단순하고 명쾌한 디자인으로 개발하였다. 특히 모티프 3과 모티프 5는 강릉 수보의 형태적 특징인 면 분할을 적용하여 변화와 율동감을 주고자 하였다.

모티프 7부터 모티프 12는 비교적 넓은 면의 넥워머와 대폭 머플러 개발을 위한 디자인으로 강릉 수보의 전체적인



Figure 27.
Seoglyu-mun Subo,
38 × 40cm, 19C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1988, no. 105)



Figure 28.
Suhwa-mun Subo 3,
35 × 35cm, 19C
(taken by author)



Figure 29.
Suhwa-mun Subo 4,
35 × 35cm, 19C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4, p. 293)



Figure 30.
Sumok-mun Subo 3,
33 × 32cm, 19C
(www.koreanstonemuseum.com)

문양을 활용하여 기하학적인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수보 문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평면도 형식의 구도를 적용하고, 좌우 또는 사방대칭형과 방사형으로 모티프를 배치하여 강릉 수보의 구조적인 특징을 반영하였다. 모티프 개발 과정에서 복잡한 문양 형태의 생략과 일부 변형이 있었으나 전체적인 구도나 이미지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2. 텍스타일디자인 개발과 니트 패션문화상품 제작

앞에서 완성된 총 12개의 기본 모티프들을 단독 배열 혹은

반복 단위로 배열하여 텍스타일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이를 시뮬레이션 맵핑 작업을 통해 개발 아이টে에 적용한 후 최종 디자인을 선정하여 니트 패션문화상품으로 제작하였다.

개발 아이টে은 니트 착용 시기인 봄과 겨울철 강풍이 잦은 강릉의 기후적 특색을 고려하여 보온성과 휴대성, 패션성을 모두 겸비한 머플러(Muffler)와 넥워머(Neck warmer)로 선정하였다.

색채 기획은 20~40대의 비교적 젊은 세대 타겟으로 기획되어 강릉 수보에 나타난 고채도의 화려한 색상과 보색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Kim, 2019), 현대적인 니트 패션문화상품의 개발 목적에 따라 강릉 수보의

Table 4. Development of a Motif using the Gangneung Subo Pattern

Division	Motif 1	Motif 2	Motif 3	Motif 4	Motif 5	Motif 6
Pattern of Gangneung Subo	Tree & bird pattern	Tree & flower pattern	Tree & flower pattern	Tree pattern	Tree & flower pattern	Tree & flower pattern
Development Motif						
Division	Motif 7	Motif 8	Motif 9	Motif 10	Motif 11	Motif 12
Pattern of Gangneung Subo	Tree & flower pattern	Tree & bird pattern	Tree & flower pattern	Flower & bird pattern	Tree pattern	Tree pattern
Development Motif						

조형적 특징 중 색채 특징을 제한하여 반영하였다. 따라서 색상은 선호도가 가장 높은 블랙(Black)을 기본 바탕색으로 하여 아이보리(Ivory), 그레이(Gray)의 무채색과 포인트 색상으로 코발트 블루(Cobalt Blue) 색을 교차 적용하여 세련되고 모던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소재는 울 30%와 아크릴 70%의 혼방사를 사용하였고, 12 게이지의 조밀한 니트 제작을 위해 시마세끼 컴퓨터 횡편기로 생산이 가능한 업체에 의뢰하여 버드아이 자카드 편직 기법으로 제작하여 문양의 선명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공장 발주를 통해 실제로 개발된 강릉 수보 문양의 니트 패션 문화상품은 소폭 머플러 6점, 빅위머 6점, 대폭 머플러 6점으로 총 18점이 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텍스타일디자인과 니트 패션문화상품은 Table 5, Table 6, Table 7에 제시되었다.

소폭 머플러 Table 5의 완성 사이즈는 가로 10 × 세로 150(cm)이다. 작품 제작기법인 버드아이 자카드 편직 기법은 문양이 겹면에만 나타나고 안쪽은 버드아이 즉 믹스 무늬가 나타나 홑겹으로 머플러를 제작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릉 수보의 겹보 제작 방식을 적용하여 머플러의 가로 폭을 완성 사이즈의 두 배, 즉 20cm로 제작하여 반으로 접어 두 겹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버드아이로 인한 시각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동시에 형태의 안정감도 함께 향상하였다.

20~30대를 타겟으로 기획된 소폭 머플러는 기존의 일반적인 머플러와 다르게 가로 폭을 좁게 디자인하고 색채 기획에서 무채색 계열의 현대적인 색상 배치를 통해 젊고 세련된 감각을 더함으로써 MZ세대를 대상으로 전통적 문양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간절기 가볍게 목

Table 5. Development of Textile Design and Knitted Fashion Cultural Products using Gangneung Subo Pattern 1

Division	Narrow Muffler 1	Narrow Muffler 2	Narrow Muffler 3	Narrow Muffler 4	Narrow Muffler 5	Narrow Muffler 6
Motif						
Color	Black, Ivory	Black, Ivory	Black, Cobalt Blue	Black, Gray	Black, Gray	Black, Cobalt Blue
Simulation Mapping						
Knit Fashion Culture Products						

Table 6. Development of Textile Design and Knitted Fashion Cultural Products using Gangneung Subo Pattern 2

Division	Neck warmer 1	Neck warmer 2	Neck warmer 3	Neck warmer 4	Neck warmer 5	Neck warmer 6
Motif						
Color	Black, Ivory	Black, Gray	Black, Gray	Black, Ivory	Black, Cobalt Blue	Black, Cobalt Blue
Simulation Mapping						
Knit Fashion Culture Products						

에 둘러 스타일링 하여 패션 포인트와 체온 유지에 좋은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Table 6의 넥워머는 가로 60 × 세로 30(cm)으로 제작하였다. 넥워머는 착용 시 자연스러운 주름이 나타나 안쪽의 버드아이가 쉽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홉겹으로 제작하였다. 강릉 수보의 문양을 넥워머의 중앙에 단독 배치하여 주름이 지면서 보이는 바탕색과 문양색의 조화미를 살리고자 하였다.

대폭 머플러 Table 7의 사이즈는 가로 30 × 세로 180(cm)으로 제작 방법은 소폭 머플러 제작 방법과 같다. 모티프를 머플러의 중앙에서 일렬로 연속 배열하여 강릉 수보 문양의 독창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텍스타일디자인을 전개하였으며, 20~40대를 타깃으로 머플러의 기능성과 보온성에 비중을 두어 제작하였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강릉의 문화자원인 강릉 수보 문양을 활용한 현대적인 니트 패션문화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문헌 연구와 현장 조사를 시행하고, 강릉 수보 문양의 독특한 조형적 특

징을 바탕으로 모티프와 텍스타일디자인을 개발하여 실제적인 니트 패션문화상품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릉은 역사·문화적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고장으로 수보는 거의 강릉을 중심으로 한 관동 지방의 독자적인 산물로 규방 예술 분야에서도 독창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은 강릉의 고유한 문화자원이다. 서울공예박물관을 중심으로 많은 강릉 수보가 소장되어 전시되고 있으며, 강원도 무형 문화재 김순덕 전통 자수장과 강릉 임영 보자기 연구회, 강릉 자수 알리미 등이 강릉 수보의 맥을 잇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를 통해 강릉을 대표하는 문화상품 개발 소재로서 고유성과 차별성, 역사성을 모두 갖춘 강릉 수보의 활용 가치를 입증하였다.

둘째, 강릉 수보의 수문, 수화문, 화문을 중심으로 총 12개의 기본 모티프를 디자인하고 이를 단독 또는 반복 배열하여 텍스타일디자인을 전개하였다. 모티프 개발에서 강릉 수보의 형태적 특징인 복합 문양 구성을 통해 문양에 담긴 길상의 의미를 전달하고, 양식화된 문양 형태와 면 분할의 특징을 살려 단순하고 명쾌한 디자인과 함께 균형과 울동감을 주었다. 또한 강릉 수보의 구조적인 특징을 반영하여 평

Table 7. Development of Textile Design and Knitted Fashion Cultural Products using Gangneung Subo Pattern 3

Division	Wide width's Muffler 1	Wide width's Muffler 2	Wide width's Muffler 3	Wide width's Muffler 4	Wide width's Muffler 5	wide width's Muffler 6
Motif						
Color	Black, Ivory	Black, Gray	Black, Gray	Black, Ivory	Black, Cobalt Blue	Black, Cobalt Blue
Simulation Mapping						
Knit Fashion Culture Products						

면도 형식의 구도를 적용하고, 좌우 혹은 사방대칭형이나 방사형의 배열 방식으로 모티프를 배치하였다. 이처럼 강릉 수보 문양의 조형적 특징 중 형태와 구조를 활용한 다양한 모티프와 텍스타일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었다.

셋째, 강릉 수보 문양을 활용한 니트 패션문화상품은 소폭 머플러 6점, 넥워머 6점, 대폭 머플러 6점으로 총 18점이 제작되었다. 소폭 머플러는 기존의 일반적인 머플러와 다르게 가로 폭을 좁게 디자인하여 간절기 가볍게 목에 둘러 스타일링 하여 패션 포인트와 체온 유지에 좋은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넥워머는 착용 시 자연스러운 주름이 나타나는 점에 주목하여 문양의 색과 바탕색의 조화미를 살리려 하였다. 대폭 머플러는 모티프를 머플러의 중앙에서 일렬로 연속 배열하여 강릉 수보 문양의 독창성을

극대화하고 머플러의 기능성과 보온성에 비중을 두어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강릉 수보 문양을 활용한 니트 패션문화상품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넷째, 니트 패션문화상품 제작에 있어 문양의 선명도를 높이고자 버드아이 자카드 편직 기법으로 제작하였다. 니팅 기법은 복잡하고 디테일한 문양 표현에 있어 한계점을 가지는데, 강릉 수보의 양식적이고 도식화된 문양 형태는 니트로 표현하기에 매우 적합한 문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강릉 수보의 독보적이고 차별화된 문양이 강릉 문화상품 개발의 모티프로써 그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며, 강릉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패션문화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강릉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증진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상품 개발에 있어 니트 소재를 활용하고 실제 제작으로까지 연계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개발한 텍스타일디자인을 상품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상품은 제작되었으나 개발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용화 방안으로 개발된 니트 패션문화 상품의 활용도를 모색하고 소비자의 선호도 및 구매 의도 등 실증적인 연구가 후속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강릉의 문화자원인 강릉 수보 문양을 이용한 니트 패션문화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특징을 살리고 지역 고유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문화자원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강화하고 역사·문화적 관심과 지식을 고취하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 Bedding in the Drama 'Saimdang' (2017). [Photograph]. *Gangneung City Hall Official Blog*. Retrieved from <https://blog.naver.com/pinegn/220986892245>
- Cha, B. Y. (2010). *A study on the design of parasol fabric using Chochungdo*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Choi, D. Y. (2018, January 23). Local tourism and economic vitality found on KTX. *Gangwon Media Group*. Retrieved January 10, 2021, from <http://www.kado.net>
- Exhibition 'GIV' (2021). [Photograph]. *Pressian*. Retrieved from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11511233861714#0DKU>
- Gangneung Embroidered Bojagi Glasses Cleaner (n.d.). [Photograph]. *NATIONAL SOUVENIRS CENTER*. Retrieved from <http://souvenir.or.kr/m/product.html?branduid=2574083>
- Ha, Y. (1989).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 심리* [Traditional colors and color psychology in Korea]. Seoul: Myoungji publisher.
- Heo, D. (1988). *옛보자기* [Characteristics Bojagi]. Seoul: The Museum of Korean Embroidery.
- Heo, D. (1997). *사라져가는 우리 보자기* [Our Bojagi disappearing]. Seoul: The Museum of Korean Embroidery.
- Heo, D. (2004). *이렇게 예쁜 보자기* [Bojagi's Simple Elegance]. Seoul: The Museum of Korean Embroidery.
- Heo, D. (2006).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규방 문화* [Our Gyubang culture]. Seoul: Hyeonamsa.
- Hwajo-mun Subo 1. (n.d.). *SMART K*. Retrieved from <http://koreanart21.com/review/antiques/view?id=1041>
- Hwajo-mun Subo 2. (n.d.). *Korean Stone Art Museum*. Retrieved from http://www.koreanstonemuseum.com/bbs/board.php?bo_table=pk_b02_04
- Hyun, S. H., & Bae, S. J. (2009). Textile design development applying Shin saimdang's painting Chochungdo: Focused on fashion culture products. *2009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PP. 276-279). Seoul: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 Jung, J. S. (2014). Development of scarf textile design and the scarf-making by using art works of Shin saimdang: Focusing on grass and insect painting.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8), 84-94. doi:10.5392/JKCA.2014.14.08.084
- Jung, M. J. (2015). *A study on textile design through the application of Shin saimdang's Cho-chung-do*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Kim, C. Y. (2009). A research about the color and surface composition of Chogakbo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The Korean Society of Illustration Research*, 19, 27-36. UCI:G704-SER000000642.2009.10.19.002
- Kim, E. (1993). *한국 민속제의와 음양오행* [Korean folk ritual and yin-yang and five elements]. Seoul: Jipmoon.
- Kim, H. J. (2014). *Textile design using Chochungdo motif*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H. (2006). *A study on developing cultural goods using historical cultural resources and amenity resourc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J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K. J. (2019, December 09). Generational color preference. *The JoongAng*. Retrieved April 2, 2021, from <https://www.joongang.co.kr>

- Kim, S. I. (2012). *A study focused on the design value of formativeness in cloth wrapper of Gangneu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Lee, H. J. (2009). *A study on the urban regeneration strategy of Gangneung city using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 Lee, J. Y. (2003). *A study on the scarf design of applied natural dye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 Lee, N. H. (2020). *A study on the textile design using the formative beauty of the Gangneung Seongyoja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Gangneung, Korea.
- Lee, S. J. (2005). *A study on clothing design applying the patterns of Subo in the late Joseon Dynasty: Focused on gutta flame retardant techniqu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Y. J. (2021, July 6). Gangneung oriental embroidery museum to close after 10 years. *Gangwon Media Group*. Retrieved March 12, 2022, from <http://www.kado.net>
- Lee, Y. M., & Kim, Y. J. (2007). Fashion designs utilizing Saimdang Shin's Chochungdo. *Journal of Fashion Design*, 7(2), 135-152. UCI:G704-001970. 2007.7.2.005
- Nam, C. (2007). *문화자원과 지역 정책* [Cultural resources and Local policies]. Seoul: Daewangsa.
-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1988). *한국전통보자기* [Korean traditional Bojagi]. Seoul: Samhwa Publisher.
-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4). *자수문양* [Embroidery patterns]. Seoul: Daewonsa.
- National Museum of Korea Goods Shop (n.d.). *SWEET, LALALA*. Retrieved from https://blog.naver.com/rase_ra/222355054290
- Park, Y. J. (2018, May 17). About 5,000 artifacts from the Korea embroidery museum donated to Seoul museum of craft art. *NEWTOMATO*. Retrieved January 12, 2021, from <http://www.newstomato.com>
- Song, J., Choi, J., & Kim, J. (2015). Development of cultural product design based on Chochungdo by Shin saimdang: Through the color expression of pop art.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3(5), 807-821. doi:10.29049/rjcc.2015.23.5.807
- Song, M. J., & Park, H. W. (2010). A study on the plasticity of Gaya relic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cultural goods.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4(5), 158-175. UCI:G704-001042.2010.14.5.006
- Suh, S. Y. (2013). A design development of knitwear based upon Baekje traditional patterns as culture oriented clothing products.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16(1), 135-150. doi:10.16885/jktc.2013.04.16.1.135
- Suhwa-mun Subo 1. (n.d.). [Photograph]. *The Museum of Oriental Embroidery*. Retrieved from http://www.orientalembroidery.org/bbs/board.php?bo_table=relic1&wr_id=9
- Sumok-mun Subo 1. (n.d.). [Photograph]. *The Museum of Oriental Embroidery*. Retrieved from <http://www.orientalembroidery.org>
- Sumok-mun Subo 3. (n.d.). [Photograph]. *Korean Stone Art Museum*. Retrieved from http://www.koreanstonemuseum.com/bbs/board.php?bo_table=pk_b02_04
- Yang, S. Y., & Lim, H. S. (2013). Study on textile pattern design development method using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Focus on works of Nanseolheon Huh cho-hee, a historic figure of Gangneung. *Journal of Korea Design Forum*, 39(39), 133-142. doi:10.21326/ksdt.2013..39.012
- Yang, S. Y., & Lim, H. S. (2014). A study of coffee cup pattern design based on Nanseolheon's calligraphy and art deco's geometric patterns. *Journal of Korea Design Forum*, 44(44), 195-204. doi:10.21326/ksdt.2014..44.017
- Yoon, S. H., & Hong, H. (2015). The development of cultural products and textile designs with the patterns of Jeju Choga.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3(1), 45-62. doi:10.29049/rjcc.2015.23.1.45

Received (February 27, 2022)

Revised (April 21, 2022)

Accepted (April 21, 2022)